

4월 지육시세는 3,250원/ kg 예상



권혁만 팀장
(주)선진한마을 모든계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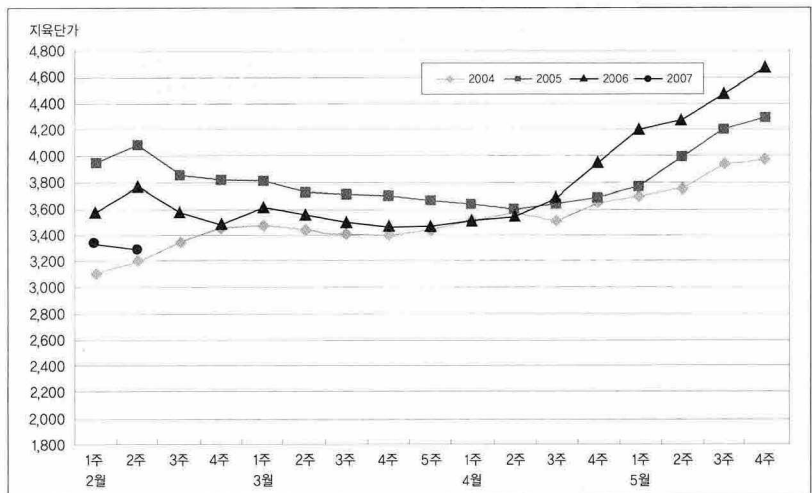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양돈 농가들의 마음이 뒤숭숭하고 돼지고기 가격은 바닥을 맴돌면서 양돈 농가의 걱정은 늘어만 가고 있다. 여러 질병들과 싸우면서 간신히 버텨 왔는데 앞으로 돼지 가격마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다. 3월에도 돼지가격은 몇 번의 고비를 넘기면서 아슬아슬 3,100원대를 유지해 오고 있다. 육가공 업체에서는 돼지고기가 팔리지 않아서 냉동 보관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수입 업체에서도 돼지고기가 팔리지 않고 재고가 늘어나면서 할인 판매가 늘어나고 수입 원가 이하에 팔게 되면서 적자가 늘어난다고 한다.

도대체 갑자기 돼지 도축두수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왜 재고가 증가하고 어렵다고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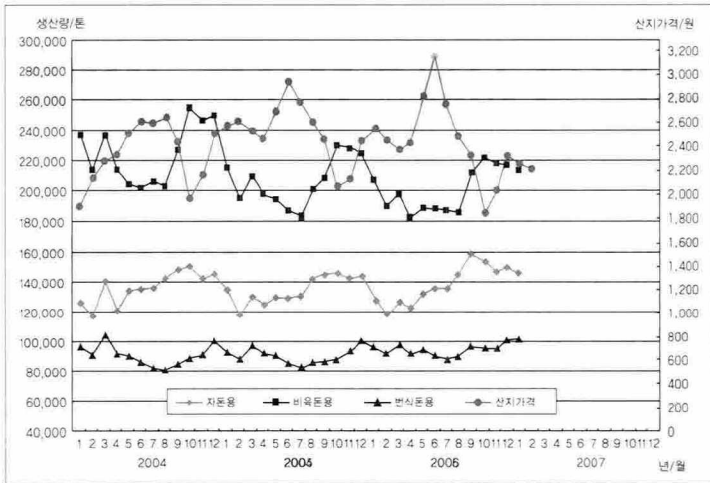
그것은 돼지고기 수입의 증가 추세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2006년 1월과 2월에 수입한 돼지고기 수입량은 29,020톤인데 2007년 1월과 2월은 53,153톤으로 전년대비 83%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돼지고기 도축두수는 2007년 1월과 2월의 누계 도축두수는 210,042두로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하여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의 큰 폭의 하락의 원인이 되지는 못한다.

결국 수입 돈육의 큰 폭의 증가가 현재 큰 폭의 돈가 하락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국내산 돈육이 부족해지거나 소비가 증가되더라도 과거처럼 쉽게 국내산 돈육 가격이 회복되리라고 볼 수 없는 증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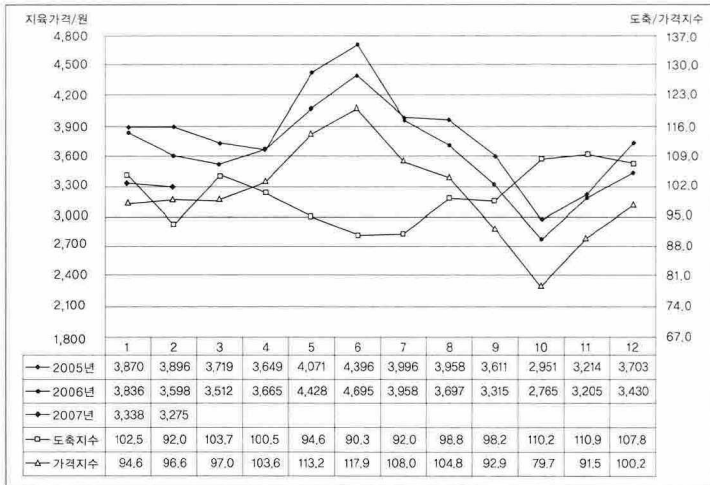
국내 돈가의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는 수입 돼지고기는 향



<그래프 1> 전국 도매시장의 최근 4개년간 주간별 지육가격 동향



<그래프 2> 최근 4개년간 월별 사료생산량의 변화와 돈가 동향



<그래프 3> 최근 3개년간의 월별 도축 및 가격지수와 월별 돈가 동향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7년 1월의 사료 생산량 동향을 보면 전년 동기보다 늘어난 모든 두수와 사육두수의 증가로 인하여 7.6% 증가한 461,694톤을 기록하고 있어서 금년 전체적인 돼지 출하두수는 전년보다 4~6% 증가한 수치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 양돈 사육두수의 증가와 출하 및 도축두수 증가에 외국산 돈육 수입까지 합세하여 공급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소비는 답보 상태인 현재의 상황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는 금년 하반기 이후 양돈 시장의 돈육가격 하락을 불려와 양돈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2007년 4월의 국내 주요 도매 시장의 돼지 지육단가는 3,250원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돈**

후 국내 양돈 시장을 놓고 외국산과 국내산의 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국내산 돼지고기가 모자라서 가격이 급등하기는 수입 돼지고기가 국내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가 없다.

삼겹살만 놓고 계산해 보면 국내산 삼겹살의 자급률은 58%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미 지난 2년 동안 국내 양돈 시장의 42%가 외국산 삼겹살로 바뀌었으며 상당수의 식당에서 외국산 삼겹살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서 국내산 돼지고기의 공급이 모자라더라도 그 빈자리를 대신할 외국산 돼지고기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가격의 급등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4월 중순 이후부터 야외 활동이 증가하고 정육점과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 돼지고기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국내산 돼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정 부분의 국내산 돈육 가격의 상승을 기대할